「취업진로연구」 제8권 제1호(통권 21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18. Vol.08, No. 1, pp.001~020

논문접수일 : 2018년 01월 27일
최종수정일 : 2018년 03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13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김호원 (한국고용정보원)* · **이종구** (경희대학교)**

국문요약

한국 청년층들의 고용상태가 최악의 실업률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제활동인력의 주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매년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전후 성과비교와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대책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리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에서는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이 대졸이상 참여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에 관해서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참여자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가 근로의욕 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남성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이들 참여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 보다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비수도권 지역 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책안과 시사점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층의 양적인 참여 확대 보다는 내실 있는 질적 정착을 위해 여성과 대졸 이상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비수도권 참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전후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계층 까지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층참여자, 만족도, 참여성과.

* 제1저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E-mail: labour21@keis.or.kr.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E-mail: ss83@khu.ac.kr; Tel: 02-961-2365; Fax: 02-965-8002.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 청년층들의 고용상태가 최악의 실업률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제활동인력의 주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청년층 취업지원사업들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현주소는 통계청의 실업률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균 3점대 초중반에 머무르는 전체실업률에 비해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무려 8.6%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1월10일 발표한 자료(통계청, 2018)에 따르면 2017년 청년실업률(15-29세기준)은 9.9%로 2천년대 통계기준 변경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단순한 지표로만 지나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적지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 부재로 인한 청년층이 겪은 지난 1월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할 만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청년층의 행복지수와 스트레스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성취욕구는 단순히 소득확보를 위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욕구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이병호, 2014), 실업기간이 장기화 될구록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과 상실감은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진서현 등, 2015). 사실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과 K-MOVE 사업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했다(김호원·이종구, 2017). 이러한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취업난 사태는 향후에도 진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낮은 고용율과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고용의 질 그리고 경력단절과 같은 이중, 삼중의 덫에 갖혀 있다(김정선 등, 2016).

본 연구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들의 취업난 사태 속에서 최근 청년층들의 참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청년을 위한 유형별 개인맞춤형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취업성공패기지' 사업에 관한 청년층들의 만족도와 참여전후 성과비교, 문제점 및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였다. 이 지원사업은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로 명칭을 변경시킨 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기존 참여대상이 저소득층에서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준)고령자, 여성가장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참여대상이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가 추가되었고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청년층 YES 프로젝트, 중장년층 새 일찾기 프로젝트)'을 시행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청년, Ⅲ유형 중고령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대상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II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4년에는 목표 인원만 늘어나고 큰 변화는 없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되었고 청장년층 고용사정을 고려해 목표 인원(청년 13만명, 중장년 5만명)이 더 늘어났다(양지윤, 2015 ; 양지윤 등, 2016). 특히, 최근 고용·복지연계 강화를 위해 목표인원과 예산 등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9,091명이던 참여인원이 2016년에는 364,72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연령별 참여 현황

(2016년12월 마감 DB,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364,720	28,259 (7.7)	187,898 (51.5)	63,832 (17.5)	43,131 (11.8)	31,200 (8.6)	10,400 (2.9)
저소득층	145,042	9,275	39,690	31,209	32,190	24,244	8,434
청년층	191,769	18,984	148,208	24,577	0	0	0
중장년층	27,909	0	0	8,046	10,941	6,956	1,966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7).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상자도 다양화되고 있다. 2012년 참여자 중 저소득층 76,418명, 청년 41,573명 그리고 중장년은 25,258명으로 저소득층 참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은 145,042명, 청년층은 191,769명 그리고 중장년은 27,909명으로 청년층 참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들의 참여성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프로그램 참여전후 변화 정도 등을 조사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대안책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2.1 국내 선행연구 고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0년부터 본격화 되면서 사업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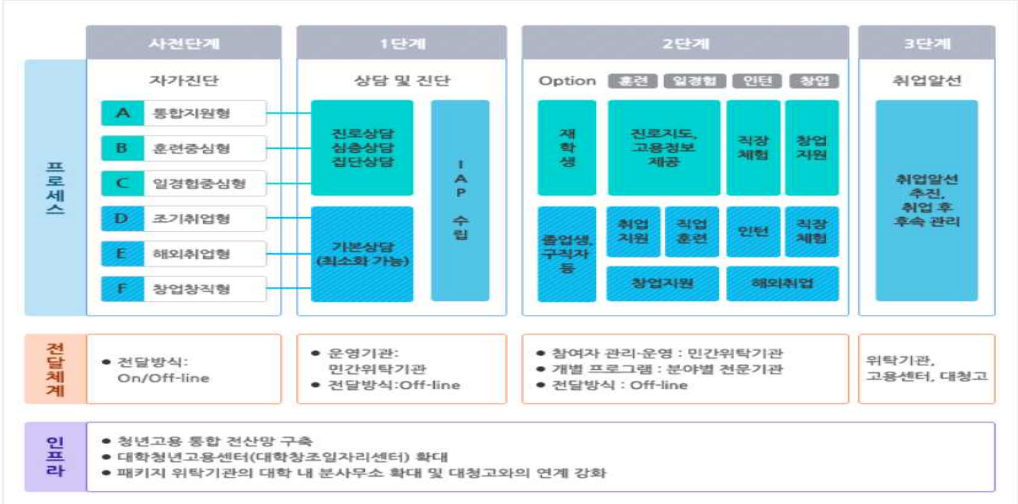
루어졌다(전병유 등, 2010, 2012 ; 류장수 등, 2011 ; 오민홍 등, 2013 ; 이병희 등, 2015, 2016).

고용부 수탁연구 과제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창연(2012)은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단계가 높아질수록 참여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계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 단계의 직업·일자리 정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낮은 만족이 전체 사업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전병유 등(2012)의 2011년 사업평가에서 사업참여자의 특성구조는 취업역량이 낮은 A유형이 50.7%를 차지하고 B유형이 19.4%, C유형이 13%, D유형이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 사업에서 중도 탈락자 비율은 2009년의 30%에서 크게 낮아진 16.5%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중 집단상담이나 직업훈련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자 유형분류에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된 참여자의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능력이 낮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상담을 통해 취업확률을 높이는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희 등(2013)의 2012년 사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훈련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훈련 참가자의 취업성과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Ⅱ유형 참가자는 취업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과도한 참여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Ⅱ유형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직업훈련 참가수당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흐름도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취업지원내용 개요)' (2018).

최형재·이시균(2013)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 계층보다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전문대졸이나 4년제 대졸보다는 고졸 계층이, 참여유형에서는 당연대상자 유형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후, 총 취업기간에서는 성별이나 연령계층별 격차는 발견되지 않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총 취업기간이 길었다. 주목할 점은 앞의 연구들과 달리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취업확률이 높고 취업기간이 길게 나왔다. 이 연구에서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 것은 기존 연구들이 사업지원 종료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사업의 단기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해당 연구는 중장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최형재 등, 2013).

이병희 등(2014)는 참여자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성과를 분석했는 데 분석결과, 2013년 취업성과는 2012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고용유지율, 150만원 이상 일자리 취득률 등 고용의 질을 반영한 성과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인적특성과 취업능력·의지 등을 통제하면 청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성과가 높지 않으며 중장년층은 오히려 낮았다. 취업능력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패키지Ⅱ유형 참여자의 취업성과가 저소득층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별로는 직장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인 취업알선이나 집단상담은 취업성과가 높았으며 직업훈련 참여는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훈련과 알선서비스를 결합하면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변화 했다.

<그림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형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유형)' (2018).

참여자 유형별로 취업성과가 높은 프로그램은 청년층에서는 취업알선과 집단상담, 중장년에서는 취업알선, 기초보장수급자는 취업알선, 저소득층은 집단상담, 취업취약계층은 직장적응력제고 프로그램, 취업알선, 집단상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병희 등(2016)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단기 성과와 중기 성과를 비교하면 취업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임금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Ⅰ유형에서 취업에 가장 효과

적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알선, 기타 2단계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나며 훈련은 평균적으로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을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며 직업훈련의 효과는 3년을 경과해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임금에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청년층에서는 임금에 효과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양지윤 등(2016) 연구에서는 2013-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818,994명의 정량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참여현황과 취업현황을 살펴보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유형인 I유형, II유형(청년), II유형(중장년)으로 구분해서 참여자 현황과 취업성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3-2015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순참여자는 698,820명이었다. 2013년 순참여자 208,894명에서 2015년에는 295,267명으로 참여자 수가 늘었고 진행자를 제외한 취업률도 2013년(56.2%), 2014년(60.5%), 2015년(78.4%)에 이르기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I유형 참여자 비율은 2013년 49.2%에서 2015년 46.5%로 낮지만 II유형(청년) 비율은 2013년 33.5%에서 2015년 45.2%로 높아졌고 II유형(중장년)비율은 2013년 17.2%에서 2015년 8.3%로 낮아졌다. 이는 정부정책 변화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중장년에서 청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취업성과인 취업률은 II유형(청년: 68.9%), I유형(59.4%), II유형(중장년: 58.9%) 순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별 취업성과는 정상적인 1-2-3단계형(56.6%)보다 1-3단계형(75.3%)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된 연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청년층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청년층 취업지원 관련 해외 사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지 그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2.2.1 프랑스 사례

김호원 등(2015)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청년고용지원의 경우, 대졸 청년보다는 생애 첫 노동시장에 진입하되 기술숙련도나 자격 없이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40% 미만인 프랑스의 경우, 청년실업률

이 높지만 주된 실업층의 대상이 저학력 청년이거나 불어가 원활하지 않는 이민 청년들이기에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고용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르코지 정부에서 기업이 대졸 청년을 직업훈련생으로 2년간 고용하면 1인당 1천유로를 지원하고 인턴사원 정식 고용시 3천 유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 조차도 올랑드 정부에서 25세 이하의 저소득, 저학력 청년을 고용하는 공기업, 비영리재단, 소형사업장, 민간기업 등에 최저 임금의 7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프랑스도 청년 고용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만 16세에서 26세까지 청년들이 졸업후 취업이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15.9%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졸업후 6개월 이내의 취업률은 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행이 쉽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장애물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층 프로파일링에서 출근거리의 장거리 여부, 주거 등을 장애요소로 체크하고 있다. 지원유형은 4가지인데 분류 기준은 ① 전혀 어려움이 없는 집단 ②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독립적인 지원 가능 집단 ③ 주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집단 ④ 사회적 문제 등 애로계층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4개 집단별 서비스 빈도수는 다르나 적어도 월 1회 이상 면담상담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후관리 지원을 한다. 지원방법은 잡서치(job search), 교육훈련, 이력서작성 및 면접기술교육 등이며 지역단체와 후원기관 연결도 이루어진다. 1993년 Youth space에서 청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속은 지방정부에 두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2014년 주요 파트너십 내용을 보면 16-25세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와 Missions Locales가 연합하여 청년 진단을 강화하고 두 기관이 연계하여 집중개입 강화, 공동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강화(고용센터-Missions Locales-국가기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2017년 계획에서 국가와 Missions Locales간 직접 체결한 협약(기본 3년)을 통해 1년 지출 예산 4,900만 유로를 청년실업 숫자 등을 고려, 차등 지급하고 Missions Locales는 전국 450개소에서 15만명의 청년실업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협약의 목적은 취업률을 높이는데 있으며 전국 900개 고용센터에 중점적으로 이행토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센터와 Missions Locales의 기관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성(산간지역, 해변지역)을 고려하여 연계하도록 했다.

고용센터 300여명 직원이 주로 파트너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고용부 대표, Missions Locales 대표, 고용공단 대표가 참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협약을 체결(2015.2.12.) 하였다. 협약에서 고용공단은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을 맡고 Missions Locales는 주거, 환경, 경제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관련 부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파트너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900개의 고용센터에 Missions Locales와 협약체결을 지시하여 현재(2015.6.30), 447개소가 완료하였으며 청년층의 창업유도를 강조(정부보조)하는 국무총리 발표도 할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센터와 Missions Locales와 연계가 잘되는 지에 대한 점검과 광역-지역간 연계 그리고 회사와의 연계, 신규 기업관리 등에 대한 점검, 협약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조치에

대해서는 관여 못하고 조사, 점검만 실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질적 평가로 청년실업자의 구직등록 후, 3개월 후의 만족도 조사(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전산으로 실시)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는 국가 수준의 평가에 반영(3년후 평가에 영향) 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대응결과 만족도, 교육과정 추가 필요성, 지속적인 관리여부, 취업이행 등이다.

다음은 Missions Locales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1983년 Association으로 출발하였으며 비진학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연령은 16-25세 청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450개의 Missions Locales가 있다. 수도권에 78개소가 있고 Missions Locales는 지역 시단위에 부속되어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다. 운영자금은 지방정부, 유럽, 국가예산, 해당 광역 지방정부 예산 등이다. 또한 개인 기업에서 받은 예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에르메스 예산으로 장애인 등에게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생소한 직업 프로그램도 운영(초코렛 등) 하고 있다. 업무처리절차는 방문 → 개인면담 → 진단(희망일자리, 소질, 교육과정 이수여부, 개인환경, 주거, 보험적용 여부 등) → 서비스 연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Missions Locales별로 운영방식이 다르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청년실업자의 구직연결, 건강연결, 돌봄, 보육연결 등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처방(의사처럼) 하는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제도인 RSA(Revenue de Solidarite Active: 1989년부터 지원)가 있으며 2013년부터 RSA Youth zone 지원(월평균 461유로, 최대 지급기간 1년)을 하고 있다. RSA는 Adult RSA와 Youth RSA zone으로 구분되며 RSA 외에 CIVS(사회생활지원기금: 1년에 900유로 지원)기금, PPAE기금(프로그램 통해 지원)도 있다. 특히,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하는 목적에 부합된 서비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김호원 등,2015).

2.2.2 영국 사례

김수영(2015)에서 영국의 경우, 민관협력 고용복지연계정책의 실험이 이루어진 1998년-2000년 초기에 뉴딜은 정부의 잡센터플러스에 의해 주도되었고 위탁사업은 제한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뉴딜은 장기실업자를 다음과 같은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18-24세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② 25세 이상 장년 뉴딜(New Deal for 25+) ③ 50세 이상 노년 뉴딜(New Deal for 50+) ④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⑤ 한 부모가정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⑥ 배우자 뉴딜(New Deal for Partners) ⑦ 음악인 뉴딜(New Deal for Musicians) ⑧ 실업률이 높은 지역사회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ommunities) 등 이다.

이 가운데 영리기업은 취업가능성이 높은 18-24세 청년 뉴딜 및 25세 이상 장년 뉴딜과 연계한다. 청년 뉴딜은 크게 진입(Gateway), 옵션(Options), 사후관리(Follow-through)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4개월간의 진입단계는 잡센터플러스 개인상담가가 담당하며 옵션단계에

서는 1년간의 학교교육이나 6개월간의 정부 임금보조 일자리 취업 및 현장훈련으로 이루어진다. 13주간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추가상담과 직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뉴딜에서 일반 기업은 옵션단계에서 정부 임금보조 일자리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뉴딜 외에 1998년 시작된 '고용촉진지역사업(Employment Zones)'도 있다. 1기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된 고용촉진지역사업은 실업률이 높은 15개 지역에 도입된 지역특화 고용서비스이다. 사업대상은 25세 이상 장년에서 18세-25세 청년, 한 부모가정까지 확대되었으며 고용촉진지역 거주 실업자는 일반 뉴딜 대신 이 사업에 참여해야 구직자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뉴딜과 달리 지역밀착형 고용촉진지역사업은 기초면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담,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후관리를 지역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정부는 신청단체의 서비스 품질, 혁신성, 목표 취업률・고용유지율을 평가해서 지역마다 1-2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5년간 지원했다. 이러한 고용촉진지역사업은 뉴딜에 비해 성과가 높아서 이후 고용서비스 전면 위탁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2000년 18-24세 청년 뉴딜 참여자의 취업성공률이 60%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 취업성공률이 30-40%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취업성공자의 40%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구직자 수당을 신청하는 등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았으며 결국 2009년 10월, 기존의 청년 뉴딜, 장년 뉴딜, 고용촉진지역사업이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로 일원화 되었다(김수영, 2015).

영국은 또한 2011년부터 워크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은 과거 실시했던 뉴딜, 고용촉진지역사업, 유연 뉴딜, 기타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이다. 따라서 워크프로그램은 기존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특징이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존재하는 지 확인한 결과 대학진학률이 낮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주된 청년층 실업층의 대상이 저학력 청년이거나 언어가 원활하지 않는 이민 청년들이기에 우리나라처럼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고용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참여전후 변화정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정책과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은 전국 지역에 걸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II유형 청년층 참여자에 한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 Questionnaire)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용된 연구조사설계방법은 아래 <표 2>와 같다.

3.1 연구조사 목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조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Ⅱ유형 청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전후 변화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2 연구조사 설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조사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 중 만 18세-34세까지의 청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693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 Questionnaire)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은 구축된 리스트 내 난수를 적용시켜 정렬한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단순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 단위를 목록(List)화 한 표본 틀은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 191,769명이며, 그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가 있는 총 34,829명의 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1,693명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4.9% 이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17년 9월1일-8일(약 1주간) 사이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2> 조사 설계

구분	조사 설계 요약
조사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Ⅱ유형 청년층 참여자(만 18세~34세)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 Questionnaire)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 구축된 리스트 내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유표 표본	▪ 총 1,693명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일 - 8일(약 1주간)

3.3 연구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먼저 설문조사 항목 구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활용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은 전반적인 만족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전후 변화 등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평가의 세부조사 항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 수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평가,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평가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 수준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성과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

조사내용들에 대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5점 척도에 의한 평균 분석 그리고 집단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3.4 응답자 특성

표본의 특성은 전국 지역에 걸쳐 총 1,6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1,147명으로 67.7%를 차지했다. 남성은 32.3%인 546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1,482명으로 87.6%를 차지했으며 30대 이상이 12.5%인 211명으로 조사됐다. 표본지역은 수도권이 59.5%인 1,00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비수도권은 40.5%인 686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817명으로 48.2%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졸업 이하는 844명인 49.8%로 나타났다. 응답거부자는 32명인 1.9%였다.

<표 4>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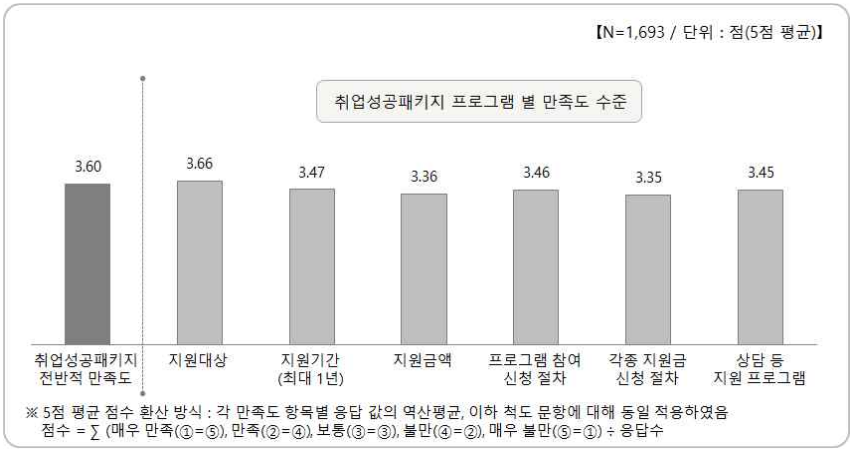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693)	100.0
성별	남성	(546)	32.3
	여성	(1,147)	67.7
연령	20대 이하	(1,482)	87.6
	30대 이상	(211)	12.5
지역	수도권	(1,007)	59.5
	비수도권	(686)	40.5
학력	전문대졸 이하	(817)	48.2
	대학졸 이하	(844)	49.8
	응답 거부	(32)	1.9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여성이 67.7%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87.6%) 그리고 지역은 수도권지역 참여자가 5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48.2%)와 대졸(49.8%)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Ⅳ. 분석결과

4.1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수준

<그림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만족도



<표 5> 취업성공패키지 전반적인 만족도 차이 검정(t-test)

분석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별	남성	546	3.72	1.04	3.373	.001***
	여성	1,147	3.55	0.93		
지역별	수도권	1,007	3.64	0.94	2.040	.042**
	비수도권	686	3.54	1.01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72	0.94	4.687	.000***
	대학교졸 이상	844	3.50	0.98		

※ ***p<.01, **p<.05,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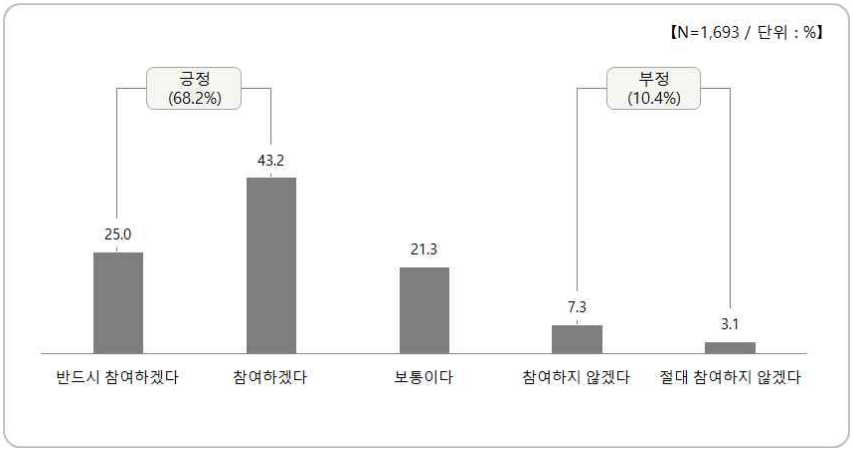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3.6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의 만족도가 3.6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지원금액' 및 '각종 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36점, 3.3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들 참여자의 특성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전반적 만족도가 3.64점으로 비수도권(이외 지역)의 만족도(3.5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서 남성의 만족도(3.72점)가 여성(3.5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만족도

(3.72점)가 대졸 이상 참여자의 만족도(3.5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 그리고 학력별 모든 요소에서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리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2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

<그림 4>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



<표 6>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 차이 검정(t-test)

분석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별	남성	546	3.81	1.07	.266	.790
	여성	1,147	3.79	0.96		
지역별	수도권	1,007	3.80	1.00	.269	.788
	비수도권	686	3.79	0.99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87	0.97	2.400	.016**
	대학교졸 이상	844	3.75	1.03		

※ ***p<.01, **p<.05, *p<.1

취업성공패키지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68.2%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25.0%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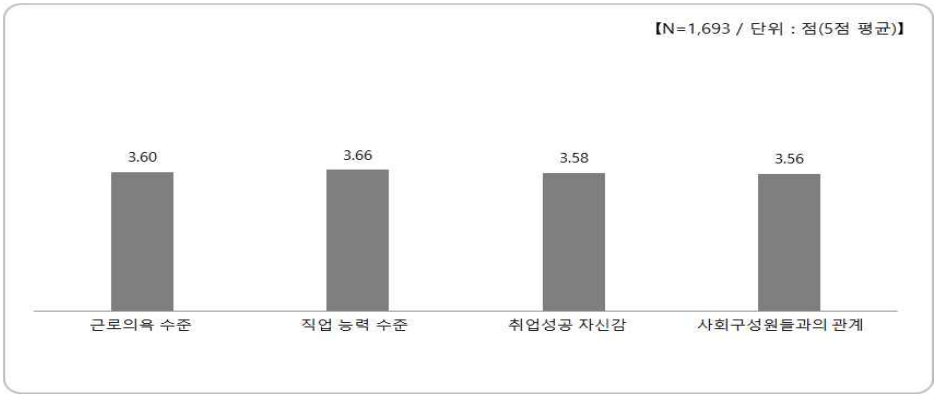
한편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만족도(3.87점)가 대졸 이상 참여자의 만족도(3.75

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3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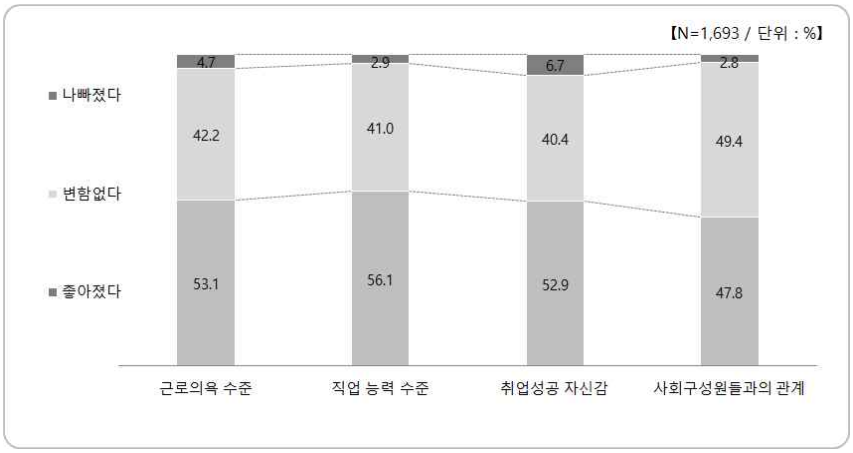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전후 변화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3.5점대 이상의 수준으로 전과 비교하여 크게 좋아진 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척도 항목을 역산 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며 중앙값인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높을 경우, '좋아졌다', 3점보다 낮을 경우 '나빠졌다'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4.5점 이상 ; 매우 좋아졌다 / 4.5점-3.5점 ; 좋아졌다 / 3.5점-2.5점 ; 변함없다 / 2.5점-1.5점 ; 나빠졌다 / 1.5점 미만 ; 매우 나빠졌다). 이를 참여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의 경우 근로의욕 수준(3.72), 직업능력 수준(3.80), 취업성공자신감(3.72),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3.73)에서 여성 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참여 전후 변화



지역별로는 수도권 참여자가 근로의욕 수준(3.64), 직업능력 수준(3.71), 취업성공자신감(3.61),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3.58)에서 비수도권 참여자 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별로는 수도권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참여 전후 비교



<표 7>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전후 차이 검정(t-test)

세부 항목	분석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1) 근로의욕 수준	성별	남성	546	3.72	0.90	4.070	.000***
		여성	1,147	3.54	0.77		
	지역별	수도권	1,007	3.64	0.80	2.447	.014**
		비수도권	686	3.54	0.85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65	0.83	1.891	.059*
		대학교졸 이상	844	3.57	0.81		
2) 직업 능력 수준	성별	남성	546	3.80	0.87	5.049	.000***
		여성	1,147	3.59	0.73		
	지역별	수도권	1,007	3.71	0.78	3.560	.000***
		비수도권	686	3.57	0.79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72	0.80	2.906	.004***
		대학교졸 이상	844	3.61	0.77		
3) 취업 성공 자신감	성별	남성	546	3.72	0.96	4.356	.000***
		여성	1,147	3.51	0.81		
	지역별	수도권	1,007	3.61	0.87	2.014	.044**
		비수도권	686	3.53	0.87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65	0.89	2.987	.003***
		대학교졸 이상	844	3.52	0.85		
4)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성별	남성	546	3.73	0.86	5.915	.000***
		여성	1,147	3.48	0.73		
	지역별	수도권	1,007	3.58	0.78	1.275	.202
		비수도권	686	3.53	0.79		
	학력별	전문대졸 이하	817	3.64	0.80	3.621	.000***
		대학교졸 이상	844	3.50	0.76		

※ ***p<.01, **p<.05, *p<.1

마지막으로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가 근로의욕 수준(3.65), 직업능력 수준(3.72), 취업성공자신감(3.65),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3.64)에서 비수도권 참여자 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근로의욕 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고용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청년층에 집중적인 취업지원 참여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최근 발표된 지난해 청년실업률 수치는 2천년대 이후 가장 높은 9.9%를 기록하며 제반 사업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145,042명, 청년층은 191,769명 그리고 중장년은 27,909명으로, 특히 청년층 참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역대 최악의 취업난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층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년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참여전후 변화정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대책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리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의향에서는 참여자의 68.2%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이 대졸 이상 참여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전후 변화정도에 대해 참여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참여자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가 근로의욕 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남성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이들 참여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 보다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비수도권 지역 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양적 참여의 확대 보다는 보다 내실 있는 질적인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대졸 이상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비수도권 참여자들이 다양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전후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설문조사라는 분석자료의 특성을 향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여성과 대졸 이상 참여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 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책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고용노동부(2017),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고용노동부(201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취업지원내용 개요)'.**

고용노동부(201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유형)'.**

김수영(2015), 영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례와 시사점, **제8차 고용서비스포럼**, 한국고용정보원.

김정선·김지영·추주희(2016), "고졸 청년여성의 취업과 직장 경험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6(2), 72-73.

김호원·오성욱·노승민(2015), 고용서비스 혁신사례(파트너십) 및 전달체계 실태분석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한국고용정보원.

김호원·이종구(2017), "해외 취업 참여경험이 취업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3), 2-3.

류장수·김종한·박성익·조장식·오민홍(201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양지윤·백광호·최석현·고희원(2016),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양지윤(2015),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고용보험 취득현황", **고용이슈**, 8(4), 26-44.

오민홍·김대환·박가열(201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익성 분석 및 구조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이병희·길현종·김혜원·이영수·이영수(2016),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평가 분석 및 개편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이병희·길현종·김혜원·노대명·이현주·성재민(2015),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복지서비스연계 강화(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이병희·길현종·김혜원·박혁(2014),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이병호(2014), **중·고령실업자의 재취업욕구가 진로경로 개척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전병유·김혜원·김용주·이병희·최형재·황덕순·장혜원·채민희(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전병유·이병희·황덕순·김주영·윤자영(201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진서현·박찬수·채영일·이홍연(2015), "평생교육기관 청년층 취업프로그램 수강자의 취업 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3), 44-46.

최형재·이시균(20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동경로 조사,** 고용노동부.

최형재·이시균·김동준·김슬기·최영미(20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동경로 조사**, 고용노동부.

통계청(2018),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8.1.10. 발표자료.

황창연(2012),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고용노동부.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8, No. 1 - March 2018

Study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and Performance of Job Support Program Specialized to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Ho-Won Ki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Chungcheongbuk-do, Korea
Jong-Gu Le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Korean youth employment rate indicators are showing the worst results. The youth unemployment accompanies social problem because they a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 for improving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which gives synthetical and concrete program to young job seekers that shows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year by year through comparing its satisfaction level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As a result, men rather than women, capital area rather than rural area, college and below level students' satisfaction level showed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higher results. Secondly, intention to re-participate was meaningfully higher statistically in college & below level than in university & upper level. Third, regarding chang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the program, men rather than women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Regionally, after participating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articipants from capital area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every item except relationship among social members. Academically, participants of college & below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every item except will to work. These results from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show that men, capital area, college & below level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is higher. Also, these results indirectly show that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rograms are helpful to these categories of participants. Of cour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regional gap is due to number of operating institutes that are concentrated in capital area rather than its contents aspect.

For futur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expanding operational institutes to run various programs which can provide non capital participants with qualified programs is essential. For fruitful settlement of the quality programs, it is necessary to offer various programs usefu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01; E-mail: ss83@khu.ac.kr; Tel: +82-2-961-2365; Fax: +82-2-965-8002.

for both genders, university & upper level, and to consider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rather than mere enhancing quantitative participa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greatly meaningful in identifying skyrocketing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change gap betwee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carelessly treated classes in current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rograms.

Key Words : *A Package of Youth Employment Success, Type of Job Application, Job Support Program, Youth Participant, Satisfaction Level, Participation Performance.*